

우수사슴 회분함량이 말해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초 녹용의 규격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회분함량 25.0%이하는 「녹용」, 25.01%~35.0%이하는 「녹용중품」으로 규격고시 했다.

따라서 협회는 올해 우수사슴 선발 심사에 녹용 회분함량 조사 항목을 포함시켰다. 명실공히 우수사슴이라고 선발된 사슴의 녹용 회분함량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분함량이 25.0%이하인 「녹용」을 농가에서 생산한다는건 경영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5.01%~35.0%이하인 「녹용중품」 정도는 생산해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적어도 회분함량 35.0%의 녹용을 생산해야 우수사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수사슴 현장조사 결과 기준량 이상 생산된 녹용의 최하단 절단부위 1cm정도를 직접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공인기관에 회분함량 조사를 의뢰했다.

우수사슴 선발 공고에서도 밝혔듯이 회분함량 35.0%이하의 녹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녹용성장일수를 쫓사슴은 50~55일, 엘크는 75~80일에 맞추도록 했다.

녹용에 따라 회분함량 편차 커

한편 협회에서도 엘크 녹용의 경우 성장일수를 정확히 80일에 맞추어 절각하면 회분함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검체(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했다. 이 결과 최하단 부위

회분함량이 37.33%로 조사됐다.

그런데 우수사슴 심사 대상의 녹용 회분함량은 엘크의 경우 최저 39.39%에서 최고 41.33%까지 나왔다. 검체의 녹용 생김새와 우수사슴 심사대상 녹용 생김새가 거의 유사했는데도 검체의 녹용 회분함량이 2.95% 낮게 산출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회분함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한 것이다.

즉 △녹용성장일수와 회분함량과의 관계 △녹용 외관과 회분함량과의 관계 △사슴개체와 회분함량과의 관계 △사슴먹이와 회분함량과의 관계 등등 끝없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다.

사슴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나라들은 많은 무리의 사슴중에서 녹용의 외관만 보고 절각시기를 결정하는데 비해 우리 농가는 중소규모 위주로 사육하고 있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녹용성장일수 △녹용외관 △사슴개체 △사슴먹이 등에 따라 절각시기를 결정짓는 등 편차가 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녹용을 절각하는 것이 가장 낮은 회분함량이 나오는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협회에서 녹용성장일수를 쫓사슴 50~55일, 엘크 75~80일에 맞추어 절각하도록 했으나 회분함량이 제각기 나타났으며, 녹용 외관이 거의 유사한 경우에도 회분함량은 다르게 나타났다.

농가의 소득과 상관없이 녹용성장일수를 대폭 단축하여 절각한다면 회분함량 역시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현실을 의

면한 것으로 환영받지 못할 처사에 해당한다. 녹용 생산량도 많고 회분함량을 35.0%이하로 낮추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분함량은 녹용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는가, 아니면 어느 부위를 채취하여 조사해도 기준을 이하가 나와야 하는지 상당히 예민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생산량과 회분함량의 양면성

수입 녹용의 품질을 검사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회분함량 25.0%이하인 「녹용」은 전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하고, 「녹용중품」은 최하단 부위 5cm 정도를 절단한 검체 5개 이상의 평균치가 35.0% 이하가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녹용중품」의 규격기준에도 『검체의 채취는 검사대상품목 5개 이상을 최하단에서 5cm 정도의 부위 (1개당 무게 약 100g정도)에서 절단하여 검체 500g 이상을 취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최하단」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위의 회분함량이 35.0%이하여야 「녹용중품」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녹용의 회분을 시험한 결과 최하단 부위가 35.8%일때 전지 평균치가 27.3%로 조사됐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최하단 부위가 35.0%를 약간 밑돌 경우 전지의 평균 회분함량이 25.0%가 될수 있어 「녹용」과 「녹용중품」의 구분이 애매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어디까지나 회분함량은 녹용 전지의 전체 회분함량 차이에 따라 「녹용」과 「녹용중품」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하단에서 채취한 부위의 회분함량이 35.0%이하일 때만 「녹용중품」에 해당된다면 올해 우수사슴 심사대상은 단 한마리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모두 최하단

회분함량이 35.0%를 넘고 있어 실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녹용중품」의 회분함량 역시 전체 평균치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최하단 절취부위 회분함량이 42.0% 이하만 우수사슴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분시험 성적과 협회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회분함량을 종합한 결과 절취부위 회분함량이 42.0%일 때 전체 평균치가 35.0%가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단, 절취부위 회분함량 42.0%를 기준으로 1% (0.42%) 범위에서 웃도는 녹용에 한해 전체 녹용 중량에서 1%를 감량한 후 심사대상 사슴으로 구제키로 했으며, 기준을 1%이상의 회분함량을 보인 사슴은 실격처리 하기로 했다. 그리고 녹용성장일수 3일이전에 절각한 경우 생산량과 녹용성장일수를 나누어 1일 생산량을 산출, 1%이내의 양을 가산하여 심사대상 사슴으로 구제키로 했으며, 이 경우에도 회분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격처리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회분함량이 심사 기준으로 포함됨에 따라 농가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 딱 부러지게 「우수사슴은 이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녹용 생산량과 회분율을 평가해야 하는 양면성 때문에 앞으로 우수사슴 심사기준이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올해 우수사슴 선발 심사 내용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내년에 좀 더 보완된 심사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양질의 녹용 생산 주력해야

이제부터는 올해 우수사슴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느낀점과 실지로 조사된 회분함량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증을 기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녹용성장일수와 회분함량은 정비례하는가.

녹용성장일수가 짧으면 회분함량 역시 낮고, 성장일수가 길면 회분함량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장일수와 회분함량은 절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녹용의 발달상태가 양호한 녹용일수록 성장일수가 길어도 회분함량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

둘째, 녹용 외관은 회분함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

지금까지 상대분지가 벌어지기 이전에 절각하면 좋은 품질이고 많이 벌어진 녹용은 그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설득력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거의 상대분지가 벌어지지 않은 녹용이 벌어진 녹용보다 회분함량이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슴개체에 따라 녹용의 회분함량 편차가 심한가.

분명 그렇다. 사슴에 따라 성장일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각질화가 조기에 이뤄지는 사슴이 있는가 하면 90일을 넘어도 유연한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이 있었다. 녹용 생산량이 많은 우수사슴일수록 각질화가 유연하다고 보면 된다.

넷째, 사슴먹이는 회분함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농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때 녹용이 성장하는 시기에 건조보다는 햇풀인 청초(갈잎 등)를 먹이면 녹용의 질이 좋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슴에 옷나무를 급여하면 녹용이 서서히 자라고 각질화율이 낮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사슴먹이가 회분함량에 영향을 미치는건 틀림없는것 같다.

법적 회분함량 무시할 수 없어

다섯째, 회분함량을 고려해서 반드시 조기

절각해야 하는가.

우수사슴 심사대상이 아닌한 우리 농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조기 절각하면 재생뿔이 돌아나고 무엇보다 녹용 생산량의 저하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절각했을 때 18kg 생산한 녹용을 조기절각하여 15kg 생산했을때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가 하는 점이다. 18kg 생산했을 때 보다 15kg 생산했을 때 회분함량이 월등히 낮다면 별문제 이겠으나 별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18kg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충분히 자라게 하면 재생뿔도 돌아나지 않고 각질화된 첫가지 이하를 잘라내 녹각으로 처리하면 상품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선호하는 농가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산녹용의 품질시비를 없애기 위해 양질(良質)의 녹용을 생산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상 검토한 다섯가지 내용은 농가에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일기를 희망하며, 현재로서는 우수사슴을 선발하는데 법적 회분함량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국산녹용의 한약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회분함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녹용의 품질을 결정짓는 척도는 어디까지나 회분함량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회분함량 외에 녹용의 특이성분인 지표물질(강그리오사이드)을 규격기준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나 그때까지는 회분함량이 녹용의 품질을 결정짓는 잣대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농가에서는 녹용 생산량이 많고 회분함량이 낮은 우수사슴 발굴과 함께 사슴사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꾸준히 추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올해 우수사슴 현장조사와 녹용 회분함량 결과를 보고 우리 양록농가가 새롭게 인식해야 될 내용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